

2024. 4. 12.(FRI) - 12. 12.(THU)

전시장소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로얄엑스 R2 갤러리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895-20

전시기간

10:30 - 17:30

*매주 월요일 휴관 / 입장마감 17:00

방문예약



김명준 · 미드데이 · 박세미 · 서울김
이윤석 · 이희준 · 전재우 · 허성범

MYONGJOON KIM · MIDDAY · SEMI PARK
SAUL KIM · YOONSEOK LEE · HEE JOON LEE
JAEWOO CHON · SUNGBUM HEO

주최 화성시

주관 act GROUND
화성 ICT 생활문화센터

후원 ROYAL&CO.

기획 pushtoenter



도시 시도 City Attempts

회사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었던 A씨는 아직 새로운 주소가 입에 잘 붙질 않는다. 작은 부탁을 하나 하기에 거리감이 느껴지는 불편한 친구 같은 새로운 곳이지만 처음 맞이하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전시를 보러 나왔다. 자꾸 두리번거리게 된다.

B씨는 지난 주말,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들을 데리고 모교를 찾았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름과 위치만 그대로지,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롭다. “아빠 어릴 때, 점심시간에 여기서 저-기까지 뛰어다녔어.”라며 손가락을 뻗어보니, 이젠 그곳은 6차선 도로다.

“좋은 하루 되세요”

월요일 아침, 가볍게 인사를 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A 씨와 B 씨는 각자 차를 몰아 출근을 한다.

입에 올릴 때 이렇게 많은 의미를 품는 단어가 있을까 싶다.

누군가에게 도시는 기억이고 추억이며, 누군가에게는 새로움, 도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이 ‘도시’는 무엇일까.

도시는 그 영역을 구성하는 사회적, 산업적, 환경적, 물리적인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과거의 도시 개념이 나의 영역에 대한 구분이었다면, 현대의 도시는 지리적 영토에 국한되지 않는 긍정적 확장성을 가짐과 동시에, 변화와 적응에 빠르게 발맞춰야 하는 환경 및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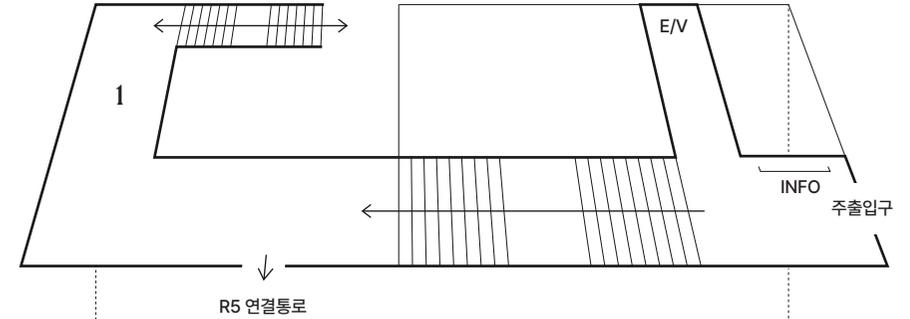
<도시 시도>는 도시와 공간, 건축과 사회를 조사-수집-연구하는 과정을 발전시켜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 오고 있는 젊은 건축가 8팀과 함께한다. 이 전시는 그들의 작업 세계를 통해 도시와 건축을 새로운 방식으로 탐구하고 포착해 보려는 시도이다. 건물과 현상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도시’와, 건물과 공간만으로 표현될 수 없는 ‘건축’을 건축가의 시선으로 담아, 도시와 공간에 대한 공감, 영속성, 도시의 표피, 도시 개념의 탈피, 관계의 탐구, 이분법적 도시관의 해체, 지속적인 전체, 건축가의 역할 등의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한다. 각각의 다른 이야기들이 도시 가치의 본질적인 구성과 변화를 묘사하고 공간에 대한 경계를 넘나들며 건축환경과 생활 시스템의 긴밀한 연결에 대한 고민을 담아 앞으로 또 다른 질문을 던져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들여다보는 것이 곧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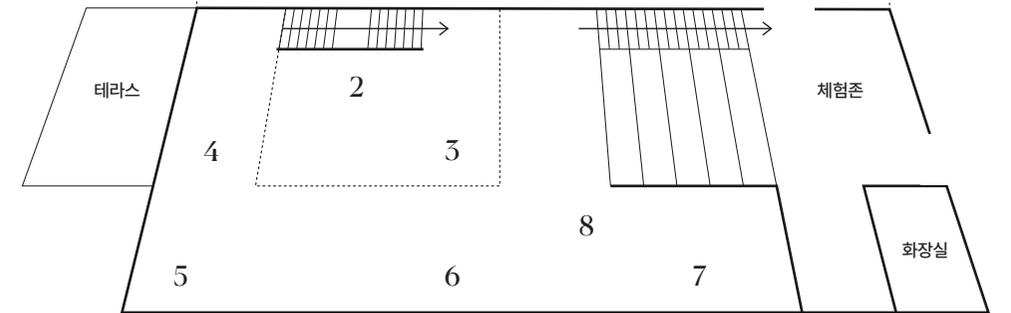
도시의 새로운 미래비전은 한발 내딛는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백만의 목소리이다.

전시 구성 Exhibition Map

1F



B1F



1 박세미

<물의 기록>

Semi Park

<The Writing of Water>

4 허성범

<지속되는 전체: 낭만적 거짓 또는 소설적 진실>

Sungbum Heo

<The Continuous Whole>

7 김명준

<표면침투>

Myongjoon Kim

<Surface Invasion>

2 미드데이

<대장경 (부제: 편견의 집)>

Midday

<Canon>

5 전재우

<나는 관중이다>

Jaewoo Chon

<I am a[n] (Attention) Whore>

8 이윤석

<메쉬-타프-스크린>

Yoonseok Lee

<Mesh-Tarp-Screen>

3 사울킴

<안티 퍼즐>

Saul Kim

<Anti Puzzle>

6 이희준

<집>, <타워>

Hee Joon Lee

<House>, <Tower>

체험존

나의 미래 도시 만들기

박세미 물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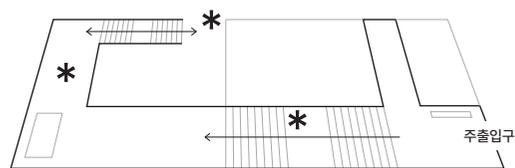
Semi Park The Writing of Water

<물의 기록>은 공적 공간인 도시에서부터 사적 공간인 욕실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다. 도시의 지붕으로 떨어진 물이 도시기반 시설을 통과하여 내 앞의 거울에 맺힌 한 방울이 되기까지의 경로이다. 도시에 관한 물의 입장이며 증언이고, 선언이다. 수도꼭지와 도시라는 스케일, 건축과 문학이라는 장르, 이성과 감성이라는 지각을 '물'이라는 매개를 통해 오가고자 한 시도이다.

작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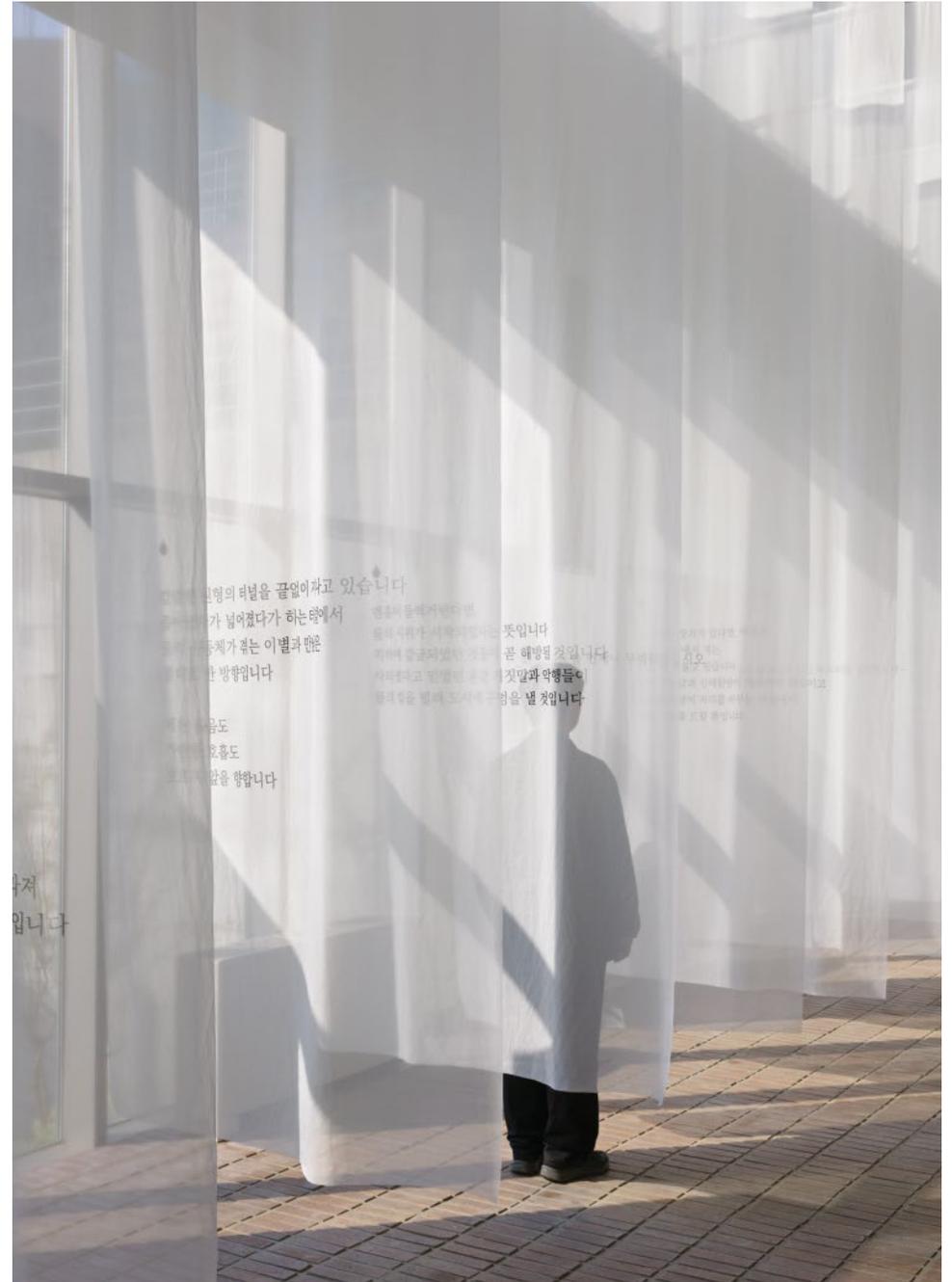
박세미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십년 간 건축 전문지에서 기자로 일했다. 201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고, 시집 <내가 나일 확률>, <오늘 사회 발코니>를 썼다. 건축과 문학 두 축을 중심으로 기획, 출판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작품 전문 읽기



1층 곳곳에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품위치



박세미, <물의 기록>, 2024, 패브릭에 UV 인쇄, 가변크기
Semi Park, <The Writing of Water>, 2024, uv print on fabric, dimension variable

미드데이 대장경 (부제: 편견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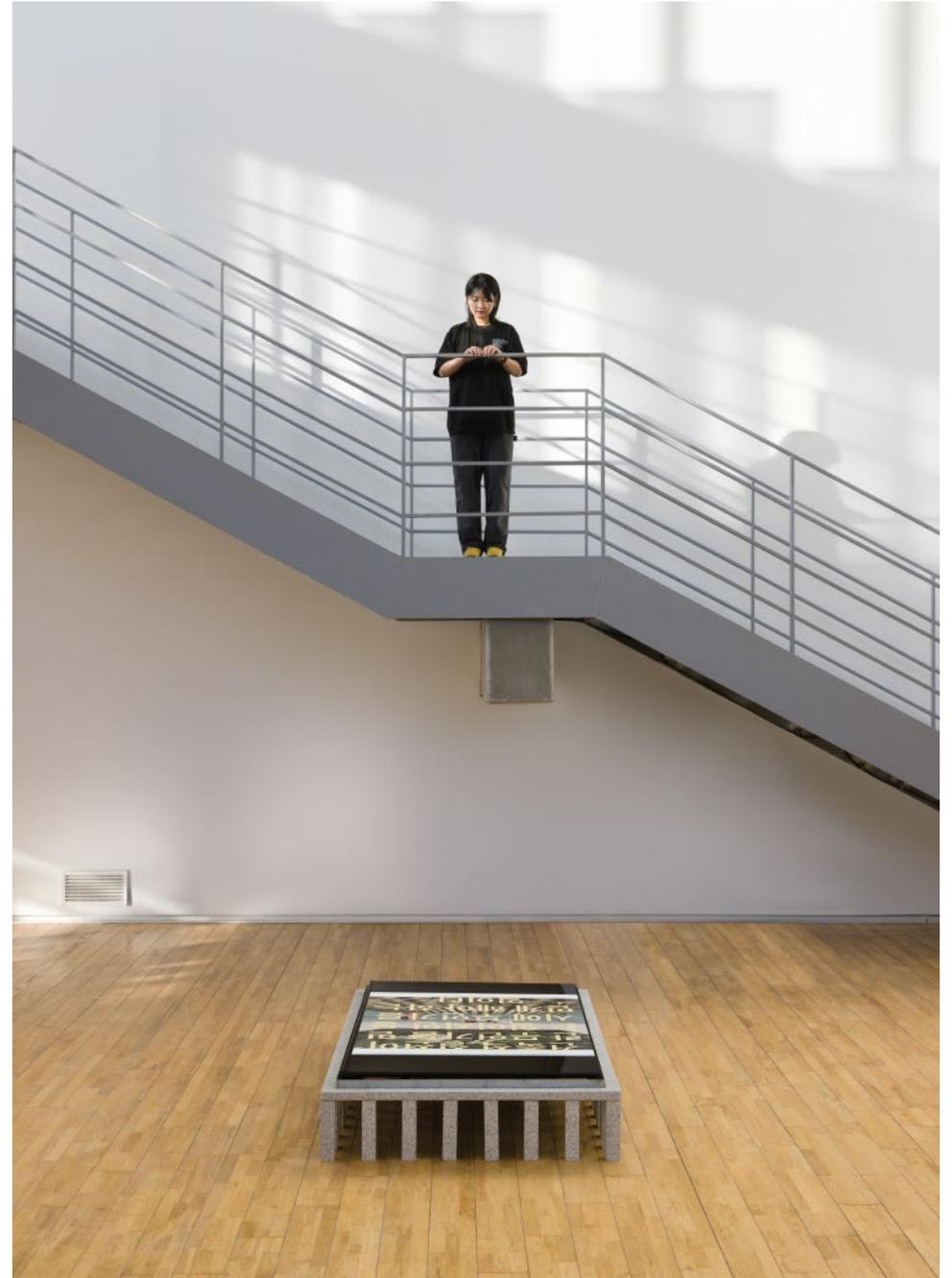
Midday Canon

건축이란 '건축적'이라고 믿고 있는 편견의 집합체다. 그렇지 않다면 건축은 건물의 동의어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건축은 건물에 얽고, 대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건축적'이라는 편견을 획득하게 되면 건축이 될 수 있다. 건물을 지었다고 건축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모더니스트 건축가들이 당대를 대표하는 모더니티를 획득하게 된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건축 이론가 베아트릭스 콜로미나에 따르면 모더니즘 건축은 모더니즘 건물 이전에 탄생했다. 르 꼬르뷔지에, 아돌프 로스, 미스 반 데어 로에와 같은 유명한 모더니스트 건축가들은 건물을 짓기에 앞서, 이미지와 글의 힘을 빌려 사람들의 머릿속에 '모더니즘 건축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편견을 먼저 주입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모더니즘 건물은 이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들에게 건물을 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생겨난 부산물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건축이라고 생각하는가, 혹은 무엇을 '건축적'이라고 판단하는가. '건축적'이라는 가치의 권위는 어디서 어떻게 부여되는 걸까. 수많은 건축적 지식과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이번 작업은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건축적 편견들의 일부를 포착하고 한편으로는 이를 다시 형성해 보고자 하는 시도다. 이 작업은 으레 건물이 올라서던 기반부 위에, 건물 대신 텍스트-이미지의 결합체로 지어졌다. 이것은 이미지 없이 건축을 읽을 수 없게 된 것도 모자라 텍스트 없이 이미지를 읽지 못하고, 이미지 없이 텍스트를 읽지도 못하는 현시대의 인류를 위한 건축물이다. 여기에서 작가는 그동안 건축을 하며 깨닫게 된 내용들을 가장 건축스러운 이미지들과 함께 병치하여 특정한 건축적 편견을 유도한다. 이것은 믿음만한 지식일까. 한편, 앞으로의 건축은 이 편견 속에 있을까 이 편견 바깥에 있을까.

작가 소개

오연주와 정해욱은 건축가이자 디자이너로 '건물(building) 이전에 실존하는 건축(architecture)', '건축 표피 이전의 질서와 에스테틱'에 대한 사고를 전개한다. 둘은 모두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학사와 독일 Städel Schule 건축 석사를 전공하고 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Milan에서 일했다. 2021년부터 건축/디자인 스튜디오 미드데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와 담론 사이를 오가며 실험적인 프로젝트부터 지어진 건물까지의 다양한 형식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출간한 단행본으로 <가상-건축 Architecture as Fabulated Reality>(2020)와 <Upperhouse-Oriented>(2023) 등이 있다.



미드데이, <대장경 (부제: 편견의 집)>, 2024, 혼합 재료, 109x181x31cm, 약 22분
Midday, <Canon>, 2024, mixed media, 109x181x31cm, approx. 22min

사울킴 안티 퍼즐

Saul Kim Anti Puzzle

"안티 퍼즐" 개념은 현실에서 도출한 이질적 요소들 사이에서 보이는 틀에 박히지 않는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건축의 구축에 대한 전통적 관념에 도전한다. 이 개념은 퍼즐 조각처럼 부품을 맞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전치와 재조립을 통해 건축적 존재를 다시 정의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건축에 대한 선입견을 넘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혁신과 창의성을 복돋는다. 해체와 재조립의 기법을 통한 "우발적 인접성(accidental adjacencies)"의 창출은 존재론적 부분과 프로그램적 공간의 중첩을 촉진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도시의 유기적인 발전을 반영하며, 활기차고 서로 연결된 공동체를 뒷받침한다. 도시 규모에서 본 "안티 퍼즐"은 주거, 상업,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아우르는 복합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교통수단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활기찬 환경을 조성한다.

작가 소개

사울 킴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건축가로, 싱가포르에서 건축을 시작해 서던캘리포니아 건축연구소 (SCI-Arc)에서 건축학 학사 학위를, 하버드 대학교 디자인 대학원에서 건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0년에는 독창적인 건축적 표현에 대한 열망으로 "Anomaly Architecture(변이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디자인 리서치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울 킴은 출판물,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선보일 기회를 얻게 되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사울 킴은 미국, 캐나다, 우크라이나, 한국에서 다양한 설계 및 디자인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다. 건축 교육에도 힘쓰고 있는 사울 킴은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진행하는 강의와 더불어 도메스티카(Domestika) 등 플랫폼을 통해서도 많은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한다. 온라인에서의 교육 활동 외에, 2023년에는 홍익대학교에서 겸임 교수직을 맡았고, 2024년에는 계원예술대학교에서 강사로 수업을 맡아 일하고 있다.



사울킴, <안티 퍼즐>, 2024, 혼합 재료, 가변 크기
Saul Kim, <Anti Puzzle>, 2024, paint on MDF, dimension variable

허성범 지속되는 전체: 낭만적 거짓 또는 소설적 진실

Sungbum Heo The Continuous Whole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한다.”

- 르네 지라르 (René Girard, 1923-2015)

기술의 발달은 시간의 이미지를 바꿔왔다. 기차와 비행기는 도시 간의 이동을 넘어서 국가 간의 이동마저 일일생활권으로 줄였고, 디지털 기술은 마치 모두가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는 듯한 환경을 제공한다. 현대의 기술들이 정말하게 발전할수록 시간의 이미지는 압축되어가고, 물리적인 시간차도 극복할 날이 머지않았다.

Montes horribilis, '끔찍한 산'이라는 오명은 1882년 Gottard Railway가 생기기 전까지 알프스의 대중적인 견해였다. 필요악으로 여겨지던 알프스가 '아름다운 자연 풍경'으로 치환되며 공간의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졌다. 탐험가(traveler)는 관광객(tourist)로 바뀌었고, 이는 곧 교통수단의 발전이 여행의 대중화를 가져온 결과였다. 도시와 자연 사이의 간극이 사라지면 극화된 알프스의 대자연 풍경과 대규모로 조직된 도시공원 사이의 공간적 위계는 줄어든다. 공간의 이동이 획기적으로 쉬워지면 여행의 대중화를 넘어서 공간의 탈 영토화에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자연을 대상화하면서 발생하는 이분법적 도시관을 해체하는 과정을 촉발하며, 우리가 속한 환경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상태로 바라보는 통합된 관점으로 나아간다.

<지속되는 전체: 낭만적 거짓 또는 소설적 진실>은 도시-자연-건축이 통합된 하나의 환경을 표현하는 구축 작업이다. “모든 것이 인공이다.”라는 전제로 '순수한 자연'과 같은 이상적인 표상에 머물던 자연의 개념을 현실의 문제로 전환한다. 이는 건축, 도시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도 인간의 이상적인 욕망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논리와 공명하며, 근대의 이분법적인 도시관을 벗어나 동시대의 입체적인 환경관을 형성한다.

작가 소개

허성범은 '건축적'이라는 단어의 기준을 정의하기 위해 건축적사무소를 설립하였다. 이분법적인 도시관을 벗어나 통합된 환경으로 나아가는 대안적인 환경관을 주제로 새로운 공간 개념을 탐구하고 있다. 2023 서울마루 공공개입 파이널리스트, 한국-스위스 수교 60주년 오픈콜 당선,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당선 등 다수의 공공 프로젝트를 완수하였다. 현재 계원예술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출강 중이며, 자문박 아트리지던시 입주 작가로 활동 중이다.



허성범, <지속되는 전체: 낭만적 거짓 또는 소설적 진실>, 2024, 혼합 재료, 가변 크기
Sungbum Heo, <The Continuous Whole>, 2024, mixed media, dimension variable

전재우 나는 관중이다

Jaewoo Chon I am a[n] (Attention) Whore

“건축가들은, 아니, 적어도 나는, 사실 관중끼가 넘쳐난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대부분 건축가는 흘러넘치는 자신의 관중끼를 애써 감추려 노력한다. 무게 잡고, 각 잡는 것은 솔직히 피곤하다. 그러잖아도 딱딱한 세상의 무게는 무겁고 각은 뾰족하니깐. 그럼에도 우리가 고상함을 떨치지 못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건축가들은 매일 순수 예술과 순수 공학 사이를 오가며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숙명, 책임감을 떠안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업적 사명감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건축한다’라는 자부심으로 이어진다.

자, 전형적인 건축가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빨테안경에 시커먼 무지 옷, 베토벤 교향곡 좋아할 것 같고, 난해한 용어들을 남발하며 교양과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 무척 애쓰는 사람을 떠올렸죠? 맞죠?

이러한 직업적 컨셉은 건축가 개개인의 모습에서 비롯되어 심지어 법률적인 영역까지 반영되는 지경에 이른다. 예를 들어, 1909년 미국 건축가 협회(AIA)는 건축가들이 자신의 직업이나 사무소를 광고나 마케팅 등의 상업적 행위로 이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었다. 건축가는 상업적인 수단을 넘어 도덕적인 가치관을 옹호하는 직업이라 여겨졌으며, 건축가의 명성은 오로지 자신의 순수한 능력과 재능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므로 진실을 과장하는 상업적 광고는 추잡스럽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물론 이 법안은 1972년도에 철회됐지만 그로 인한 여파는 관성적으로 남아있다. 직업병 덕분인지 ‘신비주의’라는 감옥을 지어 누구도 가듯 적 없지만 어느새 지독히 갇혀버렸달까? 암... 겸손이 미덕이지... 그렇고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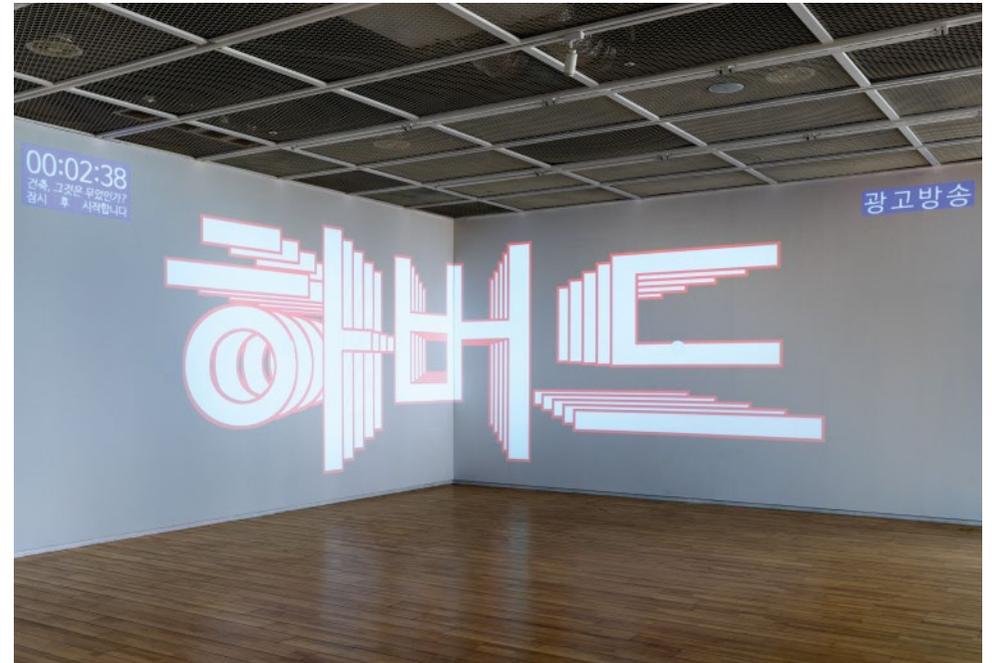
하지만 젊은 건축가라는 수식어가 붙은 나. 젊음이라는 미명하에, 그것을 핑계 삼아, 주체하지 못하는 관중끼를 열씨구나 좋라며 늘어놓아 볼까 한다. 나는 건축을 꽤 잘하고, 신박한 아이디어들이 풍부하며, 여러분들의 의뢰를 머리 싸매고 고민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 아참, 제가 하버드를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었던가요? (윙크)

나의 적나라함에 격이 떨어진다며 힐난을 퍼붓는대도 어쩔 수 없다. 바야흐로 자기 PR의 시대, 신비주의로 가다간 굶어 죽는다.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제발 프로젝트 좀 주세요! 흥정은.... 죄송하지만 어려워요. 열심히 할게요!”

작가 소개

전재우는 하이퍼스팬드럴 운영하며 건축, 전시, 미술, 제품, 기획 등에서 다양한 공간개념적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University of Waterloo에서 학사, 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현재 한양대학교와 인하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혈액형이 AB형인데, 별자리는 전갈자리인데다가, mbti까지 INTJ라서 좀 지랄맞다. 그래도 정은 많다.



전재우, <나는 관중이다>, 2024, 2채널 비디오, 6분 52초
Jaewoo Chon, <I am a[n] (Attention) Whore>, 2024, two-channel projection video, 6min 52sec

이희준 집, 타워

Hee Joon Lee House, Tower

유년 시절 방 한편에 의자, 테이블을 쌓고 이불로 가구 더미를 덮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 놀았다. 이 작품은 그 유년 시절의 기억에서 시작되었으나, 집의 추상이나 재연(reenactment)이 아니다. 이는 건축이라는 단어도 모르던 시절 만들었던 집의 2024년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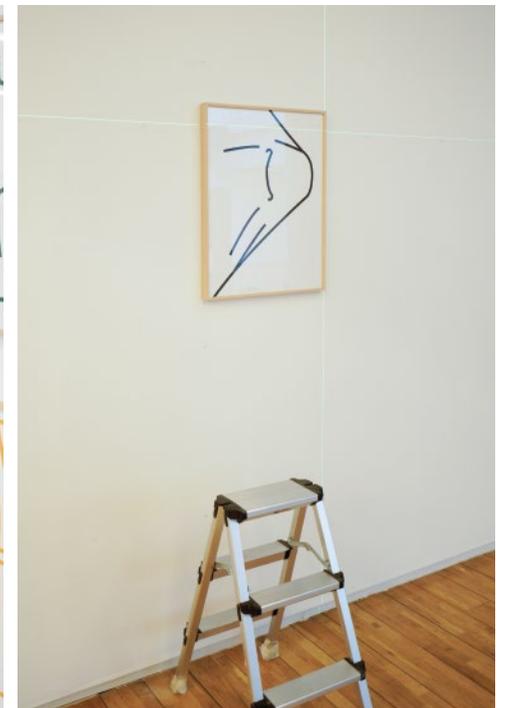
이 집은 무작위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가구를 쌓고 그것을 이불로 덮는 정확한 방식이 있다. 가구를 덮는 천은 각 집의 형태와 조응하는 패턴으로 제작되어 집의 윤곽을 드러내면서도 집 안의 공간을 만든다. 이 집은 패턴을 도면 삼는 건축이라는 점에서 건축인 동시에 웃이다.

작가 소개

이희준은 canon vision의 공동 대표다. <건축평단>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C3>, <건축평단> 등의 지면과 두 권의 단행본에 건축과 영화에 관한 글을 썼다. 국민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 AA Visiting School Seoul에서 건축 설계를 가르친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학전공을 졸업하고 영국왕립예술학교에서 최우수 논문으로 건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 타워 Tower, 2024, 종이에 실크스크린 screen printing on paper, 48.5×64.5cm, ed.5/5
2. 집 House, 2024, 종이에 실크스크린 screen printing on paper, 48.5×64.5cm, ed.5/5
3. 집 House, 2024, 종이에 실크스크린 screen printing on paper, 48.5×64.5cm, ed.5/5
4. 집 House, 2024, 종이에 실크스크린 screen printing on paper, 48.5×64.5cm, ed.5/5
5. 집 House, 2024, 종이에 실크스크린 screen printing on paper, 48.5×64.5cm, ed.5/5
6. 집 House, 2024, 종이에 실크스크린 screen printing on paper, 48.5×64.5cm, ed.5/5
7. 집 House, 2024, 종이에 실크스크린 screen printing on paper, 48.5×64.5cm, ed.5/5
8. 집 House, 2024, 종이에 실크스크린 screen printing on paper, 48.5×64.5cm, ed.5/5
9. 집 House, 2024, 종이에 실크스크린 screen printing on paper, 48.5×64.5cm, ed.5/5
10. 타워 Tower, 2024, 종이에 실크스크린 screen printing on paper, 48.5×64.5cm, ed.5/5
11. 집 House, 2024, 종이에 실크스크린 screen printing on paper, 48.5×64.5cm, ed.5/5
12. 집 House, 2024, 종이에 실크스크린 screen printing on paper, 48.5×64.5cm, ed.5/5
13. 집 House, 2024, 종이에 실크스크린 screen printing on paper, 48.5×64.5cm, ed.5/5
14. 집 House, 2024, 종이에 실크스크린 screen printing on paper, 48.5×64.5cm, ed.5/5
15. 타워 Tower, 2024, 종이에 실크스크린 screen printing on paper, 48.5×64.5cm, ed.5/5
16. 타워 Tower, 2024, 종이에 실크스크린 screen printing on paper, 48.5×64.5cm, ed.5/5
17. 집 House, 2024, 종이에 실크스크린 screen printing on paper, 48.5×64.5cm, ed.5/5
18. 타워 Tower, 2024, 종이에 실크스크린 screen printing on paper, 48.5×64.5cm, ed.5/5
19. 집 House, 2024, 종이에 실크스크린 screen printing on paper, 48.5×64.5cm, ed.5/5
20. 타워 Tower, 2024, 종이에 실크스크린 screen printing on paper, 48.5×64.5cm, ed.5/5
21. 집 House, 2024, 종이에 실크스크린 screen printing on paper, 48.5×64.5cm, ed.5/5



김명준 표면침투

Myongjoon Kim Surface Invasion

도심을 걸으며 벽에 붙어있는 스티커들에 주목해 본다. 장소, 지역마다 붙어있는 스티커들의 형식, 내용 모아보면 그들의 시각적 정보들이 도심의 맥락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현대에는 도심에서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고 소통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작가 소개

김명준은 서울을 걸어 다니면서 보이거나 들리는 건축적 현상을 연구하며 음악과 밸으로 비틀고 재해석하여 보여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Panvesy(판베씨)라는 이름의 DJ 이자, 부캐 Kim_panve(김판베)로 건축 밸(Meme)을 생산하며, 서울대 건축학과 대학원에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이다.



김명준, <표면침투>, 2024, 혼합 재료, 530x300cm
Myongjoon Kim, <Surface Invasion>, 2024, mixed media, 530x300cm

이윤석 메쉬-타프-스크린

Yoonseok Lee Mesh-Tarp-Screen

<메쉬-타프-스크린>은 건축 영상을 영사하기 위한 스크린을 설치하는 작품이다. 설치물은 4.6x4m 크기의 메쉬 타프, 영상을 재생하는 노트북, 타프를 설치하고 철수하는 행위가 만드는 궤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은 마치 캠핑을 온 듯 기회주의적 태도로 펼친 영사의 구조를 통해, 지어진 것과 지어질 곳에 깃드는 것들이 맺는 일시적이며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탐구한다. 구조, 재료, 디테일이 재구성된 스크린은 건축물과 특수한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시공간을 열지만, 이내 홀로 분리되어 날아가 버린다. 이것은 낙관적인 이야기이다.

작가 소개

1990년 대전에서 태어났다. 하루 종일 세일러문만 그리던 청소년기를 지나 대학에서는 건축을 공부했다. 졸업 후 건축가로 활동하며 유튜브 채널 <서울은 이상한 도시>에서 건축과 도시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왔고, 2019년부터 인터뷰 시리즈 <월세 아니면 전세>를 기획해 청년 주거의 이모저모를 기록하는 중이다. 최근 건축사무소 Various Artists and Architects...를 개소해 몇 개의 공간을 만들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윤석, <메쉬-타프-스크린>, 2024, 혼합 재료, 가변 크기
Yoonseok Lee, <Mesh-Tarp-Screen>, 2024, mixed media, dimension variable



PERSPANDREL 영
공간의 영





<도시시도>

2024. 4. 12. - 2024. 12. 12.

화성 ICT생활문화센터 로얄엑스 R2 갤러리

주최 화성시

주관 화성 ICT 생활문화센터

후원 ROYAL&CO

기획 PUSHTOENTER

© 2024. All right reserved.

이 리플렛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